

2013 12.15 대림 제 3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35,1-6 나.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를 구원하신다.>

제 2 독서 : 야고보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복 음 : 마태오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 아니면 저희가 다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대림 제 3 주일을 맞아 제대와 제의가 홍색입니다. 그리고 대림초에도 빨강초에 불이 밝혀져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시기가 가까와졌으므로 절망하지말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일년에 두번 홍색제의를 입는데 오늘과 사순 제 5 주째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복음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요한은 이삼십년을 서로 알고 지내셨을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은 아버지일을 도우며 부모님께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 하시면서 눈먼이들이 보게되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는 등등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이사야예언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냐?” 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인간의 내적인 정신세계는 납득하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저역시 수도자생활을 오래동안 하였고 사제생활만도 10 년이나 하였는데도 이따금 “왜? 그 간단한것을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처음 도착했을때에는 이태리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장미가 이태리말로 로사인데 제가 로사라고하면 그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사의 ‘로’ 발음이 ‘로’가 아니라 혀를 굴려서 내는 ‘로’이기 때문 이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이지요. 엑센트가 다른곳에 있으면 또는 말의 억양이 달라지면 못알아 듣습니다. 즉 입과 눈과 귀가 있어, 말하고 보고 들어도, 그 나라 그사람들의 풍습에 서로가 젖어들지 못하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목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듣게되는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어도 “전신부는 한국인이기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우리 가톨릭을 공격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천주교회는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성상과 성화를 그들은 우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성상이나 성화만큼 좋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그 성상이나 성화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와 같이 그것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우리가 보고 듣는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얻고자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 이해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역시 초중고는 제외하더라도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것만도 10 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제가 믿음에 대하여 다 안다고 주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가 얻은 얕팍한 지식으로 하느님을 다 안다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류 구원사업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교계제도를 통해서

구원사업을 알아들을수 있도록 - 즉 성서와, 성사, 강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수있도록 안내하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톨릭신자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분의 행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알아들어서 그것을 생활안에서 체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게되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똑바로 돌아설수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때에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 된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그것이 내것인 양, 내 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구 저렇구' 한 것입니다. 혹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 할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계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신교와 달리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나? 대림 제 3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더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려,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안에서 실천해 낼수 있는 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1-6 나.10

1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2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3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4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5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6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뚝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10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7-10

7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8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